

5·18 추모 절정 ... 금남로 뒤덮은 '임을 위한 행진곡'



▶ 관련기사 3·4·5·6·16·17·22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3년 만에 행사적으로나마 하나의 기념식으로 치러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아서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던 유족, 부상자 등 5·18 피해자들이 결국 뜻을 접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다. 5·18의 직접 피해자인 유족·부상자들은 최근 3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는 정부에 맞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등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치러왔다.

하지만 국민의 압도적인 제창 여론과 여·야 정치권,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고 정부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내 막아하면서 이번 기념식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장'이 되기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5월 3단체 회원과 정부 측 대표자로 나설 예정인 황교안 국무총리, 행사를 주관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도 참석하지 않는다.

행사는 개식을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 등

오늘 10시 5·18묘지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불참
전야제 5천여 시민 참석
추모제 5월 영령 뉘 위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경과 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합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린다.

3년 만에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뜻을 모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 5·18 피해자들이 가슴 아파하고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됐다. 국민의 압도적인 제창 여론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함께 부르며 의미를 되새기는' 제창이 아닌 합창 형식으로 끝내 결정되면서 5·18의 직접 피해자인 유족과 부상자, 광주·전남지역민의 가슴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참담하다. 5·18단체 회원, 합창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지역민, 국민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란 듯이 크게 부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오후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 집단 발포가 이뤄졌던 학살의 장소, 광주 금남로에서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성대한 전야제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유족회 주관으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의 뉘를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뜨거운 오월광주 17일 밤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하나인 '민주 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5·18 당시 계엄군에 당당히 맞서듯 광주 금남로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다. 금남로는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라"는 함성으로 가득찼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록도, 국가정원·세계문화유산 추진

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식
황총리 "한센인 복지에 최선을"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과 '제13회 한센인의 날 행사'가 17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7·22면>



이날 기념식엔 황교안 국무총리와 양승조·황주홍·신문식 의원, 이낙연 전남지사, 박병중 고흥군수, 마리안느 수녀, 전국 한센인 5000명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치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 권익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하는데 더욱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소록도는 한센인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 든 아픈도록 아름다운 곳이며, 이곳에 흐르는 피와 눈물은 치유스럽더라도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록도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광주 출신 한강, 한국인 첫 맨부커상

세계 3대 문학상...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예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46)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2·17면>
맨부커상선정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밤 영국 런던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 겸 시상식에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올해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폭력적이고 관능적인 일면을 서

정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린다. 영 어권 출판업자들의 추천을 받은 소설을 대상으로 평론가, 작가, 학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작을 결정한다.

책을 번역한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29)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은 번역의 중요성에 주목해 5만 파운드(한화 8150만원)의 상금을

작가와 번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수상소감에서 한강 작가는 "책을 쓰는 것은 내 질문에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능한 한 계속해서 질문 안에 머물고자 했다"며 "나의 질문을 공유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맨부커상은 영국 등 영연방 국가 작가에게 주는 상(Man Booker Prize)과 영연방 및 지역 작가와 번역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부문 상으로 나뉘어 수여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46)이 16일맨부커상을 수상한 뒤 상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